

윤이상 오페라 《심청》에서 합창의 역할에 관한 연구

전 정 임

1. 들어가며
2. 오페라 《심청》 개관
 - 1) 작품의 주제
 - 2) 작품의 등장인물
3. 오페라 《심청》 합창 분석
 - 1) 합창의 구성
 - 2) 합창의 내용과 음악적 특성
4. 오페라 《심청》에서 합창의 역할
5. 맺으며

개 요

윤이상(尹伊桑, 1917-1995)의 오페라 《심청》은 정치적·사회문화적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지는 작품이다. 윤이상은 1967년 ‘동백림간첩단사건’에 연루되어 한국에 수감되었다가 이후 세계 음악인들의 구명운동을 통해 1969년 베를린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러한 윤이상에게 1972년 뮌헨올림픽의 개막 축전 오페라가 위촉되고, 윤이상은 한국의 설화 ‘심청’을 오페라로 만들어 무대에 올린다.

윤이상의 오페라 《심청》에서 합창의 역할은 매우 다양하고, 사상적 측면이나 극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이 작품 속에서 합창의 역할 내지는 의미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윤이상의 오페라 《심청》을 개관한 후 이 작품에 사용된 합창 부분의 구성방식과 내용, 음악적 특성 등을 고찰하고, 이러한 고찰을 바탕으로 이 작품에서 합창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논한다.

오페라 《심청》에서 합창의 역할은 다음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윤이상이 중요시 했던 사상적 배경을 암시해준다. 《심청》은 그 내용에 있어서 유교·불교·도교 사상이 함축성 있게 표현되어 있으며, 이러한 사상을 표현함에 있어 합창은 직접적인 역할을 한다.

둘째, 줄거리를 전개하거나 이후에 나타날 사건을 예견해준다. 합창은 서막에서 천상세계의 사건들을 전개해주고, 이후 심청의 결단이 반드시 실현될 것과 심청이 자신을 바쳤지만 결국 살아나게 될 것, 심 봉사의 죽음으로 새로운 세계가 도래할 것 등을 예견해준다.

셋째, 주어진 장면에 극적인 효과를 더해준다. 합창은 주인공 심청이 지상에서의 사명을 반복하거나, 자신을 희생하겠다는 심청의 결심에 대해 그것을 반문하는 내용을 되뇌어 노래함으로써 극적 효과를 더해준다.

넷째, 장면의 시공간적 전환을 매끄럽게 해준다. 어린 심청 이후 성장한 심청으로 갑자기 넘어가는 장면에서 합창은 무상의 개념을 노래하여 세월

의 흐름을 암시함으로써 장면을 전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다섯째, 작품의 주제를 부각시켜 준다. 합창은 심청 설화의 주제인 ‘효’를 강조하는 역할과 이 작품에 내재된 ‘인간 실존의 구속과 해방’이라는 인류 보편적 주제를 강하게 부각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주제어: 윤이상, 오페라 《심청》, 도교, 유교, 합창의 역할

1. 들어가며

윤이상(尹伊桑, 1917-1995)은 1965년부터 1972년까지 《류통의 꿈》(1965), 《나비의 미망인》(1967/68), 《정령의 사랑》(1969/70), 《심청》(1971/72) 등 총 네 편의 오페라¹⁾를 작곡한다. 그중 《심청》은 정치적·사회문화적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지는 작품이다. 유럽에서 활동하던 윤이상은 1967년 ‘동백림간첩단사건’에 연루되어 사형을 구형받고 무기 징역을 선고받게 된다. 이에 세계의 음악인들이 구명운동을 벌였고, 1969년 집행이 정지되어 베를린으로 돌아간다. 이러한 윤이상에게 1972년 뮌헨올림픽을 위해 8월 1일에 상연될 개막 축전 오페라를 창작해 달라는 의뢰가 들어온다. 올림픽이라는 세계인의 축제에 동양의 작곡가, 그것도 남북한으로 분단되어 정치적 소용돌이에 휩쓸렸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온 작곡가에게 오페라 작품을 의뢰했다는 것은 단순한 음악 작품을 넘어서는 더 높은 가치를 포함하는 작품에 대한 요구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실제로 작품을 위촉했던 뮌헨 바이에른 국립오페라단의 총 감독 귄터 레너르트(Günther Rennert)는 윤이상에게 작품을 쓸 용의가 있는지를 타진하면서 다음과 같은 다양한 요구를 하였다고 한다. 아시아적인 소재를 선택해줄 것, 뮌헨 오페라 축제 기간 외에도 일반적인 연주 프로그램으로도 사용될 수 있어야 할 것, 따라서 소재는 아시아 문화에 특별한 사전 지식이 없는 오페라 관람객에게도 흥미가 있어야 할 것, 양식적으로는 현대적이지만 그렇다고 실험적이어서는 안 될 것 등등.²⁾ 이러한 요구들을 담기 위해 윤이상은 대본가 하랄트 쿤츠(Harald Kunz)와의 협의를 거쳐 ‘심청’을 소재로 삼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설화적 소재의 ‘심청’으로는 세계인의 보편

1) 윤이상의 극음악 작품은 ‘오페라’(Oper)로 분류되기도 하고, ‘음악극’(Musiktheater)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장르의 구분 문제는 또 다른 연구를 수반해야 할 문제이므로, 본 논문에서는 대다수의 참고문헌에서 사용하고 있는 ‘오페라’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2) 김용환 편저, 『윤이상 연구』 (시공사, 2001), 124.

적 정서를 담기 불충분했기 때문에 대부분은 다양한 측면에서 각색되었다.

윤이상의 오페라 《심청》에 있어서 합창은 사상적 측면이나 극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합창 부분에서 사용되는 음악적 기법도 윤이상의 작품을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준다. 따라서 본 논문은 윤이상의 오페라 《심청》에서 합창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명하여, 그 합창 부분이 전체 오페라에서 가지는 역할 내지는 의미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 논문에서는 먼저 윤이상의 오페라 《심청》을 작품의 주제와 등장인물 중심으로 개관한다. 이후 이 작품에 사용된 합창 부분의 구성방식을 살펴본 후 각 합창의 내용과 음악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고찰한다. 이러한 고찰을 바탕으로 이 작품에서 합창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논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윤이상의 극음악적 특성과 그가 이 작품 속에서 부각시키려 했던 전 인류를 향한 강한 절규의 메시지가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2. 오페라 《심청》 개관

1) 작품의 주제

설화 ‘심청’의 주제는 ‘효’이다. 자신의 목숨을 희생해서라도 아버지가 약속한 공양미를 시주함으로써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려는 심청의 강한 효심이 작품 전체를 일관해 분명하게 드러나는 주제이다. 그러나 윤이상은 이러한 심청 설화를 오페라로 만들면서 ‘효’의 문제보다는 ‘인간 실존’의 문제를 더욱 부각시켰다. ‘동백림간첩단사건’으로 옥고를 치르면서 생과사의 갈림길을 지나들었던 윤이상은 오페라의 주인공인 심청과 심 봉사를 단순한 부녀 관계가 아니라 인간의 실존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각성하

는 철학적 인물로 재창조하였다.³⁾ 세계인의 보편적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 작곡가 윤이상과 대본가 하랄트 쿤츠는 죽음과 맞바꾼 ‘심청의 효’보다 ‘눈을 뜨게 되는’ 심 봉사의 신체적 변화에 더 초점을 맞추었다. 즉, 눈먼 상태와 눈뜨는 사건을 ‘인간 실존의 구속과 해방’이라는 문제로 풀어나간 것이다. 이렇듯 인간 실존의 문제를 부각시킨 하랄트 쿤츠의 대본 덕분에 서양의 관중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보편적 주제의 오페라가 탄생할 수 있었다.⁴⁾

이 오페라 작품의 주제인 인간 실존의 문제가 가장 잘 부각되는 곳은 전체 오페라의 피날레(Finale)인 2막 3장의 마지막 장면이다. 이 부분에서 심 봉사는 자기 일생을 후회하며 죄를 고백하고 벌 받을 각오를 한다. 이후 심청과의 재회가 이루어지고 심 봉사는 눈을 뜨게 된다. 여기에서 심 봉사가 ‘눈을 뜨는 것’은 그가 고백했던 여러 가지 죄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적은 궁궐에 초대된 모든 눈먼 자, 불구자, 가난한 자 모두에게 행해지며, 이를 통해 심 봉사의 정화는 민중의 정화와 연결된다. 민중들이 심 봉사의 치유에 반응함으로써 속죄의 전개 과정은 이제 개인의 차원을 벗어나 일반적인 차원으로 확대된다.⁵⁾

2) 작품의 등장인물

오페라 《심청》에는 설화에 나오는 심청, 심 봉사, 심 봉사의 부인, 뽕떡어미, 시주승, 뱃사람, 황제 등이 그대로 등장한다. 그 외에도 심청의 효심을 강조하기 위해 심청에게 구애하는 청년 박 씨라는 인물이 추가되고, 바닷속 인물인 용왕 이외에 용왕의 신부 5인이 등장하여 설화보다 훨씬 더 방대한 인물 구성을 보여준다. 합창은 천상의 소리, 뱃사람들, 궁정신하

3) 노형석, “동백림사건 뒤 작곡, 인간 내면 술한 암시,” 『한겨레』, 1999.5.10.

4) 임연철, “횡설수설/ 고국에 돌아온 《심청》,” 『동아일보』, 1999.5.19.

5) 김용환 편저, 『윤이상 연구』, 147.

들의 배역을 담당한다. 《심청》의 악보에 소개된 등장인물들의 성부와 역할은 다음과 같다.⁶⁾

〔표 1〕 오페라 《심청》의 등장인물

배역	성부	역할
심청 (Sim Tjong)	리릭 소프라노	환생 천사
심 씨 (Sim)	바리톤	심청의 육신의 아버지
이 씨, 옥진 (Li, Ok-tjin)	리릭 소프라노	심청의 육신의 어머니 동시에 천상의 어머니
뽕덕 (Paengdok)	알토	이웃 여인
시주승 (Bettemönich)	베이스	-
황제 (Kaiser)	바리톤	-
선주 (Schiffspatron)	베이스	-
선장 (Kapitän)	바리톤	-
박 씨 (Park)	테너	심청을 사모하는 젊은 구애자
보살 ⁷⁾ 1, 2 (Bosal 1, 2)	테너, 알토	-
우물가의 아낙네 1, 2, 3 (Frau am Brunnen 1, 2, 3)	소프라노, 메조소프라노, 알토	-
문지기 (Türhüter)	베이스	-
주모 (Köchin)	메조소프라노	-
늙은 뱃사람 (Alter Seemann), 젊은 뱃사람 (Junger Seemann)	베이스, 테너	-
용왕의 신부들 5인 (Fünf Bräute des Drachenkönigs)	소프라노	-
용왕 (Drachenkönig)	다수의 베이스	-
궁신 1, 2 (Höfling 1, 2)	테너, 바리톤	-
천상의 소리 (Himmliche) 뱃사람들 (Seeleute) 궁정신하들 (Hofstaat)	혼성합창	-

6) Isang Yun, *Sim Tjong, Klavierauszug* (Berlin: Bote & Bock, 1972), 3.

3. 오페라 《심청》 합창 분석

1) 합창의 구성

전체 오페라는 서막-1막-삽입극-2막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막은 악보 상의 장 구분이 따로 없지만, 장소가 천상의 세계-심 봉사의 집-우물가로 바뀌기 때문에 전체를 3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1막은 심청이 심 봉사에게 효를 다하다가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바다에 몸을 던지는 부분까지로 총 5장으로 구성된다. 삽입극은 바닷속 장면이고, 2막은 심청이 연꽃에서 나와 황제와 혼인하게 되고 이후 심 봉사와 재회하면서 심 봉사가 눈을 뜨는 부분까지로 총 3장으로 구성된다.

합창은 거의 모든 부분에 등장하며 전체 작품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서막의 3부를 제외한 전 부분에서 합창이 사용되며, 특히 서막의 1부, 1막 3장과 4장, 2막 1장과 3장에서는 합창이 2회 이상 등장하기도 한다. 이 작품에서 합창이 등장하는 부분과 합창의 역할, 위치, 유형, 내용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오페라 《심청》의 합창 구성

구분	역할	위치	유형	내용	
서막	1부	천상의 소리	시작	혼성 4부	하늘나라 황제인 상제를 칭송함.
		천상의 소리	마지막	혼성 4부	심청의 지상 사명을 반복함.
	2부	천상의 소리	마지막	이중 혼성 4부(8성부)	심 봉사에게 심청으로 인해 짐을 내려놓게 될 것을 알려줌.
	3부	-	-	-	-

7) 보살은 산스크리트어 보디사트바(Bodhisattva)의 음사(音寫)인 보리살타(菩提薩埵)의 준말로, 일반적으로 ‘깨달음을 구해서 수도하는 중생’, ‘구도자’, ‘지혜를 가진 자’ 등으로 풀이됨. <http://encykorea.aks.ac.kr>, 검색일: 2017. 09. 15.

구분	역할	위치	유형	내용	
1 막	1장	천상의 소리	시작	이중 혼성 8부(16성부)	세월의 무상함을 노래함으로써 수년이 흘러갔음을 암시해줌.
	2장	천상의 소리	시작	혼성 4부	자식의 도리 서술로 '효'를 강조함.
	3장	천상의 소리	시작	이중 혼성 4부(8성부)	사명을 가진 자가 받을 보물에 대한 강조로 심청의 결단에 힘을 보탬.
		천상의 소리	마지막	이중 혼성 4부(8성부)	실현되지 않은 듯한 일이 결국은 이루어지리라는 암시를 줌.
	4장	벧사람들	시작	남성 2부	전통적인 벧노래의 효과를 줌.
		벧사람들	중간	남성 2부	스스로를 희생하겠다는 심청의 결심에 대해 반문함으로써 극적 효과를 더함.
		천상의소리	마지막	혼성4부	스스로를 희생하는 자는 영속한다는 내용을 통해 심청의 결단을 칭송함.
5장	벧사람들	마지막	남성 3부	심 봉사의 환상 속에서 배가 출발하여 바다의 신에게 축원을 비는 상황을 연출함.	
막간 극	-	천상의 소리	마지막	혼성 4부	모든 사물은 하나이고 도에 순응하라는 도교 사상을 강조함.
2 막	1장	천상의 소리	마지막	이중 혼성 4부(8성부)	고귀함과 비천함이 모두 그대로 좋다는 도교의 사상을 서술함.
		천상의 소리	마지막	이중 혼성 4부(8성부)	내면을 중시하는 현자의 자세를 제시함.
	2장	천상의 소리	마지막	이중 혼성 4부(8성부)	죽음을 통해 새것이 도래하고 음양이 완성됨을 강조함.
	3장	궁정신하들	중간	혼성 4부/ Sop.-Ten, Alt.-Bass가 각각 유니슨 (2성부)	황후 심청에 대한 칭송의 가사를 노래함.

구분	역할	위치	유형	내용
	궁정신하들/ 군중들	중간	유니슨, 거의 말하듯이	눈을 뜬 기적에 대해 수근 거림.
	천상의 소리/군중들	마지막	혼성 4부/ 각 성부 2파트(8성부)	‘축복’(Segen)과 ‘눈을 뜬’ (Sehen)이라는 두 단어를 반복하면서 강조함.

앞의 등장인물 부분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작품에서 합창 파트는 ‘천상의 소리’, ‘벧사람들’, ‘궁정신하들’이라는 세 가지 역할을 담당한다. 그런데 위의 (표 2)에서 살펴보면, 이중 ‘천상의 소리’로서의 합창은 총 18개의 합창 중 13개를 담당할 정도로 많다. 또한 첫 부분이나 맨 마지막 합창까지도 ‘천상의 소리’로 제시되어 있어, 이 역할이 합창 파트 중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합창의 내용과 음악적 특성

① 서막

서막 1부에서는 합창이 2회 등장한다. 막이 오르면 지상을 의미하는 팀 파니와 탐탐의 조용한 울림이 있는 후 천상을 상징하는 4개의 트럼펫이 고음에서 은은히 연주된다.⁸⁾ 그 후 곧바로 마디6부터 합창이 시작되는데 ((악보 1)), 이 부분의 가사는 천상세계의 황제인 상제를 칭송하는 내용이다.⁹⁾ 합창단원들은 가면을 쓰고 무대 양 측면의 높은 곳에 앉아 있다. 이들은 연주무대 위의 동적인 것과 극(極)을 이루는 ‘부동의 상징’으로, 연주하는 동안 조상(彫像)처럼 말없이 군림해 있다. 즉, 정지 속의 움직임인 것이다.¹⁰⁾

8) 이수자, 『내 남편 윤이상 (하)』(창작과 비평사, 1998), 34.

9) 김용환 편저, 『윤이상 연구』, 126.

주는 것이다.

서막 3부는 우물가에서 심 봉사가 세 아낙에게 젓을 동냥하는 장면이다. 그곳에 뺨덕 어미가 나타나 심 봉사를 유혹하지만 심 봉사는 그녀를 쫓아 버리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이 부분에서 합창은 등장하지 않는다.

② 1막

1막 1장은 2개의 합창단으로 나뉜 이중 합창으로 시작된다. 각각의 합창단은 8성부로 구성되어 있어 전체로는 16성부의 합창이 정교하게 짜여진다. 이 부분의 가사는 ‘근심도 오래가지 않고(Keine Sorge ist von Dauer), 불안함이나 기쁨도 지속되지 않는다.’는 무상의 개념을 담고 있다. 이후 수년이 지난 심 봉사의 집으로 장면이 바뀌고 있어, 합창을 통해 세월의 무상함을 보여주면서 장면이 전환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장도 합창으로 시작되지만 4성부로 축소되고 짜임새도 거의 호모포니(Homophony)여서 작곡가가 음악적 효과보다는 가사 전달의 측면을 더 중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부분의 가사는 ‘자식의 도리’(Kindestugend), 즉 ‘효’가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것으로 『효경』(孝經)에 나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합창의 가사 중 유일하게 유교적 사상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다 ((악보 2)).¹¹⁾

자식의 도리는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며,
 자식의 도리는 감사함으로 자기 몸을 지키는 것이고,
 자식의 도리는 부모님의 명예를 위하여 영혼을 가꾸고
 자신의 길을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¹²⁾

11) 『효경』(孝經) 중 ‘개종명의’ 편에 나오는 ‘신체발부 수지부모 불감훼손 효지사야’(身體髮膚 受之父母 不敢毀傷 孝之始也), ‘입신행도 양명어후세 이현부모 효지종야’(立身行道 揚名於後世 以顯父母 孝之終也)를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채경화, “윤이상 오페라 《심청》의 서사 구조와 음악적 수용,” 『한남어문학』 36 (2012), 254.

(악보 2) 1막 2장의 합창 (마디 62-64)

The image shows a musical score for a four-part choir (Soprano, Alto, Tenor, Bass) in Act 1, Scene 2 of the opera 'Shimcheong'. The score covers measures 62 to 64. It features dynamic markings such as *f*, *mp*, *mf*, *p*, and *ppp*, and tempo markings 'molto rit.' and 'a tempo'. The lyrics are in German: 'Kin-des-tu-gend: Das meint, sich Mü--he ge--'. The score is written on four staves, each with its respective vocal part label (S., A., T., B.) on the left.

이 합창에 이어 심청이 아버지를 위해 구걸을 하는 장면과 아버지에 대한 효성 때문에 젊은 박 씨의 청혼을 거절하는 장면이 나온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 합창은 보살 2인까지 합세하여 심청의 효심이 자식으로써 마땅히 행할 일임을 강조하고 앞으로 나올 사건들의 주제를 강하게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장은 이중 혼성 4부 합창으로 시작되어 다시 8성부의 조밀한 짜임새를 보여준다. 가사는 ‘사명 있는 자가 얻게 될 세 가지 보물’에 관한 것으로 도교의 경전인 『도덕경』(道德經)과 관련을 가진다.¹³⁾

사명을 가지는 자는 세 가지 보물을 얻게 되리라.
 현신은 용기를 주고, 순응은 힘을 가져다주고,
 도리는 자유롭게 하리니
 이것이 바로 세 가지 보물일지이다.

12) 이후 인용된 합창 가사의 번역 부분은 채경화, “윤이상 오페라 《심청》의 서사 구조와 음악적 수용,” 254-256에서 발췌하였음.

13) 채경화, “윤이상 오페라 《심청》의 서사 구조와 음악적 수용.” 254.

합창 이후에는 심 봉사가 웅덩이에 빠지고 시주승이 그를 구해주자 뽕떡 어미가 나타나 심 봉사에게 공양미 삼백 석을 시주한다는 약속을 하도록 재촉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후 심 봉사는 후회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심청은 자신이 아버지의 약속을 지켜드리겠다고 한다. 이러한 장면에서 합창이 ‘사명 있는 자가 얻게 될 세 가지 보물’에 대한 가사를 노래한 이유는 아버지를 위한 심청의 결단을 통해 용기와 힘, 자유를 얻게 될 것임을 예견해주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심청의 아버지에 대한 헌신, 순응,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통해 앞으로 세 가지 보물을 얻게 될 것임을 합창을 통해 강조하고 있다.

심청의 결단 이후에 또 한 번 합창이 등장하여 3장이 마무리 된다. 이 부분에서 이중 혼성4부 합창이 ‘실현되지 않을 것 같은 것이 나타나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내용을 노래한다. 즉, 심청의 결단에 대해 불가능할 것 같지만 결국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는 강한 확신을 보여주며 앞으로 전개될 사건들에 대한 암시의 기능을 수행한다.

4장은 뱃사람들의 합창인 남성 2부 합창으로 시작된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나라의 민속적 느낌을 풍기는 선율과 리듬이 사용되고, 가사에서 ‘에헤야’(eheja), ‘어기야’(ogija) 등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뱃노래에 사용되는 노 젓는 소리가 등장한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악보 3). 또한 형식면에서도 젊은 뱃사람-뽕떡 어미-늙은 뱃사람이 교대로 선창을 하면 합창이 후렴구를 반복하는 식으로 구성되어 우리나라 전통음악의 ‘메기고 받는 형식’을 유추하게 한다는 점도 흥미롭다. 이 부분에서 나오는 뱃사람들의 합창은 ‘윤이상이 어렸을 때 그의 아버지와 함께 밤에 바다로 배를 타고 나갔을 때 들었던 어부들의 노래에 대한 기억’이라고 한다.¹⁴⁾

14) 루이제 린저/ 정태남 옮김, 『상처받은 용』, 219.

[악보 3] 1막 4장 뱃사람들의 첫 번째 합창 (마디 473-481)

473 ca. 66 (von weit her) mp
CHOR DER SEELEUTE
E - he - - -
E - he - - -

SEELEUTE
- ja, e-he - - - ja, o-gl-ja, In ter - - nes Land
- ja, e-he - - - ja, o-gl-ja, e-he-ja,

JUNGER SEEMANN
Des Bau-ern Frucht, des
SEELEUTE
geht uns-re Fahrt, e-he-ja, o-gl-ja!
uns-re Fahrt, e-he-ja, o-gl-ja!

메기는 소리

이어서 선주가 인당수에 흠 없는 처녀를 용왕의 부인으로 바쳐야 한다고 말하고, 합창이 잠시 그 내용을 반복한다. 그때 뽕덕 어미가 뱃사람들에게 인당수에 바칠 처녀를 구해주겠다고 하고, 심청은 공양미 삼백 석을 얻기 위해 자신을 희생할 것을 약속한다. 심청이 자신의 결심을 말하고 선주-선장-뱃사람이 감사의 표현을 하는 사이 합창은 “스스로 죽음을 택하겠다고?”, “믿을 수 없어! 스스로를 바치겠다고?”라고 반문하는 내용을 음정 없이 슈프레히슈티메(Sprechstimme, 말소리)¹⁵로 되뇌듯 노래하여 효과를 더한다((악보 4)).

[악보 4] 1막 4장 뱃사람들의 두 번째 합창 (마디586-588)

Musical score for 'The Sea' (Act 1, Scene 4) showing the second chorus of sailors. The score is for two parts: SIM TIONG (Soprano) and SEELEUTE (Soprano). The music is in 2/4 time, starting at measure 587 (ca. 78). The lyrics are: 'Sie selbst gibt sich dem Tod?' and 'Sie selbst? Das gab's noch nie!'.

4장의 마지막 부분에 합창이 다시 한 번 등장한다. 이 부분에서는 혼성 4부 합창으로 “자신을 바치는 자는 영속할 것이며, 죽는 자는 살 것이다.”라는 가사를 노래하며 점차 소멸하듯이 사라진다. 이 부분의 합창은 신비롭게(geheimnisvoll) 노래하도록 지시되어 있어 심청의 희생적 결단에 대한 칭송의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심청이 자신을 희생물로 바쳤지만 결국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이후의 사건을 예견해주고 있다.

5장은 심청이 심 봉사에게 용왕과 결혼하기로 했다고 거짓말을 하며, 심 봉사는 환상을 통해 심청이 바다 깊은 곳으로 뛰어드는 것을 보는 장면이다. 합창은 심 봉사의 환상 부분에 잠시 삽입되어, 노 젓는 소리(Ehejaha!)를 통해 배가 바다로 향하고 있음을 알리고 선주가 바다의 신에게 무사항해를 축원하는 내용을 반복함으로써 극적 효과를 더해준다.

- 15) 성악 연주형태의 일종으로, 노래와 말의 두 가지 성격을 띠고 있으며 규정된 음정과 리듬 안에서 이야기 하듯이 노래하는 기법.

③ 막간극

막간극은 바다에 몸을 던진 심청이 용궁에서 겪는 일화를 삼입극 형식으로 처리한 부분이다. 용왕부인-용왕-심청의 대화가 이어지고, 심청은 아직도 아버지 심 봉사가 눈을 뜨지 못한 것을 환영으로 보고 실망한다. 그때 천상세계의 어머니 옥진이 나타나 심청에게 세상을 새롭게 하는 과제를 완성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심청을 연꽃으로 변하게 한다.

이후 합창이 등장 한다. 합창은 혼성4부로 시작하지만 중간 중간에 각 성부가 2파트로 나뉘어 8성부의 효과를 주기도 한다. 이 부분의 가사는 노장 사상(老莊思想)¹⁶⁾의 핵심인 ‘물아일체 무위자연’(物我一體 無爲自然)과 관련된다.¹⁷⁾ 이에 상응하여 합창부의 짜임새도 ‘하나’임을 강조하기 위해 거의 호모포니 짜임새로 구성된다.

사람과 식물, 신과 돌,
모든 사물은 오직 하나이고
존재의 법칙을 따른다.
도에 순응하라.

심청이 연꽃이 되는 것은 결국 사람과 식물이 하나가 되는 것이며, 이것이 존재의 법칙이고, 곧 도에 순응하는 것이라는 점을 합창을 통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다. 즉, 이 부분에서 합창의 역할은 심청이 연꽃이 되어 지상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을 도에 순응한 자연스러운 결과로 해석함으로써 사건 전개에 논리성을 부여하고 있다.

16) 노자(老子)와 장자(莊子)의 사상. 허무(虛無)를 우주의 근원으로 삼고, 무위 자연(無爲自然)을 도덕의 표준으로 하는 사상.

17) 채경화, “윤이상 오페라 《심청》의 서사 구조와 음악적 수용.” 255.

④ 2막

1장은 뱃사람들이 황제에게 연꽃을 바치고 황제가 연꽃에서 나온 심청에게 청혼을 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심청이 아버지 심 봉사에 대해 이야기하자, 황제는 그들 부부가 심 봉사에게 축복 받기를 원하고, 심청은 아버지의 축복이 자신을 자유롭게 할 것이라 말한다. 이후 두 사람은 황후(Kaiserin)가 된 심청을 칭송하는 노래를 하면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한다.

이어지는 합창은 도교의 사상을 연이어 노래하고 있다. 첫 번째 합창은 ‘고귀함과 가련함, 진리와 기만, 그대로 좋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내용은 『도덕경』 13장의 ‘총욕약경’(寵辱若驚, 영예나 모욕에 마음이 흔들린다)과의 관련성을 유추해볼 수 있다.

이어지는 두 번째 합창은 다음과 같은 가사를 노래한다.

눈은 멀고, 귀는 안 들리고, 마음은 둔감해지고!
 깊은 내심이 밖으로 펼쳐지리라!
 현자는 이렇게 있으리니,
 있으리니.¹⁸⁾

이 부분에서 합창의 역할은 황제와 심청의 순수한 사랑이 만들어주는 서정적인 분위기를 중단시키면서 다음 장에서 등장하는 심 봉사와 뺨덕 어미의 기괴하고 거의 통속적인 사랑의 장면을 준비하는 것이다. 서정적

18) 채경화, “윤이상 오페라 《심청》의 서사 구조와 음악적 수용,” 255에 따르면, 이 가사가 『도덕경』 14장의 내용과 관련을 가진다고 한다. 그러나 『도덕경』 12장과의 관련성도 유추해 볼 수 있다. (12장: 오색영인목맹 오음영인이롱 오미영인구상 … 시이성인위복불위목 고거피취차(五色令人目盲 五音令人耳聾 五味令人口爽 … 是以聖人爲腹不爲目 故去彼取此) 화려한 빛깔은 사람의 눈을 가리고 즐거운 음악은 사람의 귀를 멀게 하며, 맛있는 음식은 사람의 혀를 상하게 하고...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배를 부르게 하지만 눈을 즐겁게 하려 하지 않으므로 알맹이를 구하고 겉모양을 추구하지 않는다.)

분위기가 격렬한 합창으로 인해 갑작스레 중단되면서 그와는 대조적인 장면이 연출된다.¹⁹⁾

2장은 심 봉사의 집으로 장면이 바뀐다. 뽕덕 어미는 아들을 가졌다고 심 봉사를 속이고, 빛을 갖기 위해 집을 팔았다고 하면서 심 봉사의 전재산을 가지고 도망을 간다. 심 봉사는 뽕덕 어미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죽음(Tod) 이외에는 아무 것도 남지 않았다고 절망적으로 외친다.

이어서 합창이 등장하여 다음과 같은 가사를 노래한다.

그대는 마지막 순간에 처해 있고,
시작은 가까웠으니,
그대가 파멸하면
모든 것이 열릴 것이다.
눈앞의 죽음이 옛 것을 사멸시키고
새로운 것이 도래한다네.
상하와 흑백, 그리고 음과 양이 순환체로 완성 되네.

이 부분의 합창은 전체 작품 중에서 가장 클라이맥스를 표현해준다. 특히 마지막 단의 단어들이 ‘상하’(Unten und Oben), ‘흑백’(Schwarzen und weiß), ‘음과 양’(Yin und Yang), ‘순환체’(Kreis) 등의 단어는 fff 혹은 ffff로 매우 극적으로 표현된다((악보 5)). 윤이상이 중요시했던 도교의 핵심 사상인 ‘음과 양의 순환체’라는 가사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합창을 통해 윤이상은 전체 작품의 주제, 혹은 중심 사상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동시에 이후에 올 이 작품의 마지막 장인 3장에서 ‘심 봉사의 죽음을 통해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을 예견해준다. 또한 제시된 (악보 5)에서 ‘음’(Yin)은 ‘어둡게’(dunkel), ‘양’(Yang)은 ‘밝게’(hell) 연주하라는 지시어가 사용되고 있어, 단어의 의미와 음악적 표현을 섬세하게 연결하고

19) 김용환 편저, 『윤이상 연구』, 146.

있는 점이 흥미롭다.

[악보 5] 2막 2장의 합창 (마디 294-296)

The image shows a musical score for a four-part choir, divided into two sections: Chor I and Chor II. Each section has four staves (Soprano, Alto, Tenor, Bass). The score is in German and includes dynamic markings such as *fff (dunkel)* and *fff (hell)*, and tempo markings like *(accel.)* and *ca 86*. The lyrics are "Yin und Yang schließt sich zum Kreis". The score is numbered 294 at the beginning of the first section.

3장은 심청이 황제에게 아버지를 만나게 해준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어서 궁정신하의 합창이 등장하여, 황후 심청을 칭송하는 가사를 노래한다. 이 합창은 혼성4부이지만, 소프라노와 테너, 알토와 베이스가 각각 유니슨으로 노래하여 결과적으로는 2성부의 짜임새를 가진다(악보 6). 합창 시작 부분에서 윤이상은 특별히 '각각의 길게 늘어진 음들을 처음에는 완전히 고정된 음으로, 이후에는 더욱 더 강해지는 비브라토로 노래하라'²⁰)고 지시하고 있다. 이 부분은 윤이상이 한국의 궁

중음악적 요소들을 사용한 부분이다. 한국 궁중음악의 요소들로 ‘점점 더 강도를 더해가며 비브라토가 울려 퍼지는 고정된 음들’, ‘정지된 소리와 장식음형’, ‘주선율을 모방하며 형성되는 다성부 음악’ 등과 같은 고유의 기법들이 나타난다.²¹⁾

(악보 6) 2막 3장의 첫 번째 합창 (마디 318-323)

이어서 황제가 심 봉사를 데려오라 명하고, 황제 앞에서 심 봉사는 자신의 과거와 죄를 고백한다. 이후 심청과의 재회가 이루어지고 심 봉사는

20) In diesem Hofgesang wird jeder langgezogene Ton erst ganz starr, dann mit immer stärkerem Vibr. gesungen.

21) 김용환 편저, 『윤이상 연구』, 146.

눈을 뜨게 된다. 이때 궁정신하들과 군중들이 눈을 뜬 기적에 대해 놀라워하는 가사 “Wunder Der Blinde sieht!”를 거의 말하듯이 읊조린다. 이 부분에는 나타냄말로 ‘flüsternd’(속삭이듯이)가 지시되어 있어, 마치 수군대는 듯한 효과가 나타난다.

심청과 황제는 눈뜬 아버지에게 축복해달라고 요청하고, 아버지는 그들을 축복해준다. 그때 천상의 어머니인 옥진이 나타나 마지막 합창을 함께 노래한다. 이 부분의 합창은 혼성 4부이지만, 각 성부가 2파트로 구성되어 전체적으로는 8성부의 짜임새를 가진다. 가사는 ‘축복’(Segen)과 ‘눈을 뜬’(Sehen)이 ‘구제했다’(erlöst), ‘해방시켰다’(befreit)라는 단어를 반복하며, 맨 마지막 부분에서 천상의 소리를 담당하는 합창이 상성부를 길게 끌며 노래하는 사이 군중이 “Segen-Sehen”을 8분음표 음형으로 짧게 4번 반복하는 것으로 그 두 단어가 매우 강조되면서 끝을 맺는다((악보 7)).

(악보 7) 2막 3장의 마지막 합창 (마디 493-496)

The image shows two pages of a musical score. The top page is labeled '494' and the bottom page is labeled '495' and '496'. The score is for a mixed choir (HOF-STAAAT) and includes vocal parts for Soprano, Alto, Tenor, and Bass. The lyrics are 'Hien' and 'Se - hen'. The score shows the vocal lines and the instrumental accompaniment. The lyrics 'Hien' and 'Se - hen' are repeated in the final measure (496).

이 합창 부분에서 사용된 하나님의 축복(Segen)이라는 단어에 대해 대본

가 쿤츠는 “이 말은 종교적 의미에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오히려 내적 자유, 편견 그리고 대대로 전승된 관습의 잘못 이해된 가르침으로부터의 자유, 자기성격의 구속으로부터의 자유로 이해되어야 한다.”²²⁾고 말한다.

4. 오페라 《심청》에서 합창의 역할

오페라 《심청》에서 합창의 역할은 매우 크다. 거의 모든 장의 시작 부분 혹은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면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여 이 작품의 주요한 주제 내지는 사상을 부각시키고 줄거리의 전개를 암시해주는가 하면 극적 효과를 높여주기도 한다. 오페라 《심청》에서 합창의 역할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윤이상이 중요시 했던 사상적 배경을 암시해준다. 3계(三界) 차원에서 이루어진 《심청》은 그 내용에 있어서 유교·불교·도교 사상이 함축성 있게 표현되어 있다.²³⁾ 이러한 사상을 표현함에 있어 합창은 직접적인 역할을 한다. 합창의 가사 중에는 『효경』, 『도덕경』 등 경전의 문장들을 그대로 읊는 경우가 많고, 그 외에도 ‘무위 사상’이나 ‘음양론’ 등을 노래하기도 한다. 이들 문장들은 대부분 노자 사상으로 전래된 신비한 격언이고 단 한 차례만 공자의 글이 인용된다.²⁴⁾ ‘자식의 도리’인 ‘효’에 대해 노래하는 1막 2장의 합창만이 공자의 글로서 유교 사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그 외에는 도교 사상이 중심을 이룬다.

둘째, 줄거리를 전개하거나 이후에 나타날 사건을 예견해준다. 이 작품에서 합창은 주요 장면의 말미에 등장하여 선적인 화두로 극의 흐름을 암

22) 김용환 편저, 『윤이상 연구』, 130.

23) 이수자, 『내 남편 윤이상 (하)』, 32.

24) 김용환 편저, 『윤이상 연구』, 126.

시해준다.²⁵⁾ 예를 들어 서막 1부의 첫 번째 합창은 천상세계의 사건들을 전개해준다. 서막 2부의 합창은 심 봉사가 이후에 심청의 도움을 받게 될 것을 예견해주고, 1막 3장의 마지막 합창은 심청의 결단이 반드시 실현될 것을 예견해준다. 또한 1막 4장의 마지막 합창은 심청이 자신을 바쳤지만 결국 살아날 것이라는 암시를 주며, 2막 2장의 합창은 다음 장에서 심 봉사의 죽음으로 새로운 세계가 도래할 것을 예견해준다.

셋째, 주어진 장면에 극적인 효과를 더해준다. 서막 1부의 마지막 합창은 심청의 지상 사명을 반복하면서 주어진 사명에 신비감을 더해준다. 1막 4장 뱃사람들의 두 번째 합창은 심청이 자신을 희생하겠다고 결심한 이후 등장하는데, 그것을 반문하는 내용을 되뇌어 노래하며 극적 효과를 더해준다. 또한 2막 3장의 두 번째 합창은 심 봉사가 눈을 뜨는 기적을 본 군중들이 놀라워하며 수군거리는 효과를 준다.

넷째, 장면의 시공간적 전환을 매끄럽게 해준다. 서막 3부에서는 심 봉사가 어린 심청을 위해 짓을 동냥하는 장면이 나오며 이어지는 1막 1장에서는 성장한 심청이 심 봉사를 극진히 돌보는 장면이 나온다. 이 1막 1장이 시작되는 부분에서 합창은 무상의 개념을 노래하면서 세월의 흐름을 암시하여 장면을 전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2막 1장의 합창은 황제와 심청의 순수한 사랑에서 심 봉사와 뺨덕 어미 사이의 통속적인 사랑으로의 전환을 준비시킨다.

다섯째, 작품의 주제를 부각시켜준다. 1막 2장의 ‘자식의 도리’를 노래하는 합창 이후에는 곧바로 심청이 아버지를 위해 구걸하는 장면과 아버지를 모셔야하기 때문에 구혼자의 청을 거절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따라서 이 부분의 합창은 심청 설화의 주제인 ‘효’를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전 작품의 마무리 부분이기도 한 2막 3장의 마지막 합창은 ‘축복’(Segen), ‘눈을 뜬’(Sehen), ‘구제했다’(erlöst), ‘해방시켰다’(befreit)라는 단어를 반복함

25) 노형석, “‘상치받은 용’ 윤이상의 화려한 승천,” 『한겨레』, 1999.5.24.

으로써 이 작품에 내재된 ‘인간 실존의 구속과 해방’이라는 인류 보편적 주제를 강하게 부각시켜준다.

5. 맺으며

오페라 《심청》에서 합창의 역할은 매우 다양하다. 이 작품에서 합창이 이렇게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윤이상이 합창에 ‘천상의 소리’, ‘뱃사람’, ‘궁정신하들’이라는 역할을 부여해놓았기 때문이다. 특히 ‘천상의 소리’로서의 합창은 총 18개의 합창 중 ‘뱃사람들’ 역할 3개, ‘궁정신하들’ 역할 2개를 제외한 총 13개를 담당하며, 작품의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적으로 등장한다. 윤이상은 작품 전체에 이러한 ‘천상의 소리’라는 역할의 합창을 삽입함으로써 ‘하늘세계의 현재성’이 지속되도록 해준다.²⁶⁾ 또한 이러한 ‘하늘세계의 현재성’으로 인해 작품 중간에 줄거리와 상관없이 경전의 문장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사상적 내용을 읊조림으로써 향후의 사건을 암시하거나 주제를 부각시킨다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게 작품이 전개된다.

윤이상의 오페라 《심청》에서 합창의 역할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작품 속에서 합창은 윤이상이 자신의 작품에서 드러내고자 했던 도교 사상과 유교 사상 등의 정신적 사상을 지속적으로 배경에 깔아주는 역할을 한다. 둘째, 합창은 줄거리를 전개하거나 이후에 나타날 사건을 예견해주는 역할을 한다. 셋째, 신비한 분위기를 부여하거나 사건에 대한 군중의 반응을 표현함으로써 극적인 효과를 더해주는 역할을 한다. 넷째, 수년이 흐른 것을 나타내거나 서로 다른 설정으로의 변화가 필요할 때 장면을 급격하게 전환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다섯째, ‘효’와 ‘인간 실존의 구속과 해방’이라는 작품의 주제를 강조하고 부각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26) 김용환 편저, 『윤이상 연구』, 126.

윤이상의 《심청》은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오페라보다는 오라토리오적 특성이 더 강하게 느껴진다. 무엇보다도 도교 사상 등 정신적 사상을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어 종교적인 분위기가 작품 전체에 흐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합창의 비중이 크고 합창이 작품의 구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 개막 축전에서 상연될 오페라를 작곡하면서, 윤이상은 ‘세상의 구도자’라는 일종의 종교적 사명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닌지. 그래서 그의 오페라 작품은 오페라이지만 왠지 오라토리오 같은 색채를 갖게 된 것은 아닌지. 생과 사의 갈림길을 헤치고 나온 작곡가의 내면의 절규가 이 작품 속에서 강하게 느껴진다.

참고문헌

악보

Yun, Isang, *Sim Tjong, Klavierauszug*, Berlin: Bote & Bock, 1972.

단행본 및 학술논문

김용환 편저. 『윤이상 연구』. 시공사, 2001.

린저, 루이제 / 정태남 옮김. 『상처받은 용』. 영학출판사, 1988.

신인선. “윤이상 I.” 『음악과 민족』 28 (2004), 14-41.

윤신향. 『윤이상 경계선상의 음악』. 한길사, 2005.

윤이상·슈파리, 발터·볼프강 / 정교철·양인정 옮김. 『윤이상의 음악미학과 철학: 나의 길, 나의 이상, 나의 음악』. 도서출판 HICE, 1994.

이미경. “한국 음악과 철학이 윤이상 음악에 미친 영향.” 『음악학』 9 (2002), 167-193.

이수자. 『내 남편 윤이상 (하)』. 창작과 비평사, 1998.

채경화. “윤이상 오페라 《심청》의 서사 구조와 음악적 수용.” 『한남어문학』 36 (2012), 245-260.

_____. “한국 고전문학을 활용한 오페라 창작 방법 연구,” 박사학위 논문, 한남대학교, 2013.

최성만·홍은미 편역. 『윤이상의 음악세계』. 한길사, 1991.

Koch, Gerhard R.. “Das Nahe im Fernen. Isang Yun und der Western.” 『윤이상의 창작세계와 동아시아 문화』 (한국음악학회 편·윤이상평화재단 편집). 예술, 2007, 117-128.

Oh Seung-hun. “Yun I-sang’s Opera Shim Ch’ong: A Legend Revived after 27 years”, *Koreana* (English) Vol.13 No.2, The Korea Foundation, 1999.

Stephan, Ilja. “Kontinuität als Schaffensprinzip. Über zyklisch Zusammenhänge

im Werk von Isang Yun.” 『윤이상의 창작세계와 동아시아 문화』 (한국음악학회 편·윤이상평화재단 편집). 예술, 2007. 101-116.

신문기사

노형석, “‘상처받은 용’ 윤이상의 화려한 승천,” 『한겨레』, 1999.5.24.

_____, “동백림사건 뒤 작곡, 인간 내면 슬한 암시,” 『한겨레』, 1999.5.10.

우광혁, “한국 초연 윤이상 오페라 《심청》 예술성 연출력 탁월 ‘성공적 데뷔,’” 『경향신문』, 1999.5.24.

유윤종, “국내 관객 기대 못 미친 심리묘사: 윤이상 오페라 《심청》,” 『동아일보』, 1999.5.24.

_____, “윤이상 오페라 《심청》이 온다,” 『동아일보』, 1999.5.10.

윤자경, “《심청》 연출 문호근 씨 ‘보고 들을 것 많아 재미있는 작품,’” 『매일경제』, 1999.4.20.

임연철, “형설수설/ 고국에 돌아온 《심청》,” 『동아일보』, 1999.5.19.

“사설/ 윤이상의 《심청》 27년 만의 귀향,” 『한겨레』, 1999.5.24.

“윤이상 작곡 오페라 《심청》의 한 장면,” 『동아일보』, 1999.6.26.

Abstract

**A Study on the Roles of Chorus Part in Isang Yun's
Opera *Sim Tjong***

Chungim Chun

Isang Yun's opera *Sim Tjong* is greatly significant in political and socio-cultural aspects. The work was commissioned to Isang Yun to celebrate the opening of the 1972 München Olympics. Since *Sim Tjong* with the tale-like material could not fully reflect the world people's universal emotion, the script was dramatized in diverse aspects. In particular, in terms of theme, the issue of 'filial piety' was replaced with the human existentialism to help the Westerners understand the opera easily. Thus, an opera with the universal theme was born.

In Isang Yun's opera *Sim Tjong*, the chorus plays an important role in both terms of ideology and drama. The roles of chorus in his opera *Sim Tjong* may well be summed up as follows; first, the chorus plays the role of featuring his desired *Taoism* and *Confucianism* in the background of the opera continuously; Secondly, the chorus plays the role of developing the story or predicting the later events; Thirdly, the chorus adds a mysterious atmosphere to the opera or intensifies the dramatic effects of the opera by expressing the audience's response; Fourthly, when the past episodes should be expressed or other setting be needed for change, the chorus would play the role of changing the scenes rapidly; Fifthly, the chorus emphasizes and highlight 'filial piety' or 'containment and liberation of the human existentialism.'

Key words: Isang Yun, opera *Sim Tjong*, Taoism, Confucianism, the roles of chorus

투고일	심사일	게재 확정일
2017년 10월 20일	2017년 11월 20일 ~ 12월 10일	2017년 12월 11일